

# 광주·전남 '제2 벤처 붐'

## 기업 815개 4년 새 두배 ... 제조업 687개 최다

### 일부 지정 취소·부도 ... '무늬만 벤처'도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이 4년 새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 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벤처기업의 업체 부도도 비중을 잃던 기술보증기금이 은행권에 물어낸 금액이 지난해 26억 원에 달하는 데다, 자격 미달 등으로 포기한 기업 등이 늘었다는 얘기가.

또 기술보증기금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대출해준 보증액이 광주 지역 1천479억원, 전남 1천534억 등 총 3천134억원이었던가. 이 가운데 26억을 대위변제했다. 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 의한 벤처기업 인증제도가 기술력 평가에만 중점을 두고 사업성은 결여한 이른바 '무늬만 벤처'를 양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시시장 성장과 프리보드 시장으로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성장 기업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2009년 현재 코스닥과 프리보드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 광주기술평가센터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상장 등 본격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드문 게 사실이다"며 "벤처기업의 성장에는 정부지원도 필수적이지만,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자금,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만 2009년 현재 코스닥과 프리보드에 등록된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있는 광주기술평가센터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상장 등 본격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드문 게 사실이다"며 "벤처기업의 성장에는 정부지원도 필수적이지만,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자금,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쌀막걸리 바람, 전남쌀 뜬다

## 8월부터 주류 원산지표시제 ... 쌀 소비 활성화 기대

8월부터 주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광주·전남 막걸리 산업이 쌀 소비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전남산 햅쌀을 원료로 만든 막걸리에 원재료의 산지까지 표기됨으로써 타제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쌀, 밀가루 등을 원료로 사용했던 지역업체들도 우리쌀을 원재료로 한 막걸리 생산에 가세할 움직임이다.

24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5일부터 막걸리 제조업체 60여개에 막걸리 생산 업체들도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주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 쌀 막걸리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런 추세에 맞춰 막걸리 업체들에 생산자금·시설개보수 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지역에서 햅쌀과 올금을 원료로 한 막걸리 '우리술'을 생산하고 있는 (주)우리술은 막걸리 소비 증가에 맞춰 자동 생산설비를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원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국산 쌀 막걸리는 가격이 좀 더 비싸겠지만 소비자들이 찾는다면 앞으로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토대로 햅쌀 막걸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간진, 병영 주조장, 함평 '차차차', 순천 주조공사, 장흥 안양 주조장, 영암 삼호주조장 등 5곳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쌀 막걸리를 찾는 애호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현재까지 3억3천만원의 매출고를 보인다. 수입쌀, 밀가루 등을 원료로 사용했던 지역업체들도 우리쌀을 원재료로 한 막걸리 생산에 가세할 움직임이다.

24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5일부터 막걸리 제조업체 60여개에 막걸리 생산 업체들도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주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 쌀 막걸리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런 추세에 맞춰 막걸리 업체들에 생산자금·시설개보수 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지역에서 햅쌀과 올금을 원료로 한 막걸리 '우리술'을 생산하고 있는 (주)우리술은 막걸리 소비 증가에 맞춰 자동 생산설비를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원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국산 쌀 막걸리는 가격이 좀 더 비싸겠지만 소비자들이 찾는다면 앞으로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우수 벤처기업 투자하세요"

## 중기청, 오늘 광주과학기술원서 '벤처투자 로드쇼'

지역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로드쇼'가 열린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4일 "호남지역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로드쇼를 25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로드쇼는 성장 가능

성이 높은 지역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쇼에는 에스알시(주), 신한포토닉스 등 호남지역 우수 중소기업 7개 업체가 26개 벤처캐피탈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IR)를 연다.

또 제미니·삼광투자사 등 벤처기업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

자유채 상담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탈사와 네트워킹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감안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와 정부 벤처투자 지원 시책,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강연도 열린다.

로드쇼에 참석하는 일반 기업들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 벤처캐피탈 심사역들과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062-360-910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0 NCSI 1위 기업 인증서'에서 아시아나항공 운영부 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한국생산성본부 최정규 회장(세 번째)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은 뒤 아시아나 승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우일렉 매각 우선협상자 선정

우리은행은 24일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와 아랍계 가전업체인 엔터캡 그룹을 복수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복수로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정밀실사 및 매각조건 협상을 거쳐 8월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은 채권단이 수차례 시도했지만, 최종 협상과정에서 매각 대금과 조건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 번이나 무산됐다.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월 M&A 작업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 스무살 인터넷 1990년 3월 24일 국내 전용망 첫 개통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인터넷을 연결한 날은 정확히 20년 전인 3월 24일이다. 인터넷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인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은 국내 컴퓨터와 연결된 회선을 하와이대 컴퓨터의 56kbps 전용선과 TCP/IP 프로토콜 방식을 적용해 연결. 첫 접속에 성공한 것이다. 국내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국제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국내 최초 인터넷을 연결한 후 이메일을 성공시킨 이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 박현재(당시 KAIST 연구원·현 주인넷 대표이사) 박사는 "1년의 준비 끝에 56Kbps 국내 인터넷 전용망(HANA망)이 정식 개통됐다"며 "이후 KAIST, 삼성종합기술원 등 7~8개 기관이 9600bps 전용회선을 통해 HANA망에 연결돼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고 회고했다. /강필성기자 kps@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 인터넷 시대는 이후 민간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의 등장으로 빠른 속도로 인터넷의 보급으로 엄청나게 발전한다. 20년 전 1초에 한 사람이 사진 한 장을 간신히 보내던 속도였지만 지금은 1초에 400여만명이 동시에 각각 한 장씩을 외국에 보낼 수 있는 속도로 성장했다. 인터넷 인구도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1·2월 지역경기 회복세

올해 1~2월 중 광주·전남 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의 증가세가 계속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의 광주·전남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2% 증가했고 1월 중 건설 활동도 건축 착공면적과 허가면적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사정은 비농림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1천500명이 늘어나는 등 그동안의 부진이 완화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아시아나, 고객만족도 13년 연속 1위

아시아나항공이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나는 24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2010 NCSI 1위 기업 인증서'에서 국내항공부문 1위 기업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NCSI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동일 항공사를 편도 기준으로 4회이상 이용한 성인 남녀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시아나는 이번 선정으로 1998년 NCSI 조사가

시작된 이래 13년 연속 국내항공부문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시아나는 1988년 창사 이래 줄곧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서비스 투자와 품질 향상에 노력해왔다.

지난해 세계 항공업체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ATW(Air Transport World)의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했고, 스카이트랙스(Skytrax) 선정 4년 연속 '5성 항공사 인증'을 받는 등 최고의 항공사로 인정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81.01 (-0.81)  
코스닥지수 519.80 (-6.62)  
금리(국고채 3년) 3.94% (+0.04)  
원·달러 환율 1,138.00원 (+0.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223-1772 ☎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안로117길 20-1)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사내권 및 시외선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상 연·임실 본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리올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용보안) 전문상담사

▶ **편안한 임대 (투·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적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편입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 해수욕장 주위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화

▶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편입투자시 광주지역 원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급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력기!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FAX) 383-5221 ☎ 011-609-5221  
(상무지구 아리올 전용빌딩 1층)

**토지/주택**

위치	면적(평)	용도	가격(만원)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
동산동	(22,000평)	전도	102
나주산곡	(115,300평)	초대	352
동림동	4,469㎡ (1,352)	준주거	350

**건물매매**

위치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현리지구	37억	3,300	85억
동림지구	7억	1,700	32억
상무지구	100억	6,000	200억
상무지구	25억	6,500	100억
현리지구	4억	1,700	28억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 아리올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용보안) 전문상담사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FAX) 383-5221 ☎ 011-609-5221  
(상무지구 아리올 전용빌딩 1층)

###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223-1772 ☎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안로117길 20-1)

## 사원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에 개발전문회사로서 사제확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지원지역	비고
경리	여 0명	• 초보자 및 경력자	월급
개발	남·여 0명	• 관련전공학과 이수자 • 유경험자	기본급+수당
아파트	여 00명	• 유경험자	여 실장
토지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력자	
상가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력자	분양 및 중개
빌딩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력자	전속금융기관 견부 및 회사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프랜차이즈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력자	유형업근무 경험자 우대
경·공매	남·여 00명	• 유경험자	

(유)코리아랜드  
대표전화 959-1033, 010-7723-10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483번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73 1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8-3400

a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를 리스/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 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 발급(양도소득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응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환경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무형자산만을 추천합니다.

신안동(현동) 대지 157㎡ (47.7평) 전용 108㎡ (32.5평) 매매가 14억 4천 원  
현동(현동) 대지 157㎡ (47.7평) 전용 108㎡ (32.5평) 매매가 14억 4천 원

신안동(현동) 대지 157㎡ (47.7평) 전용 108㎡ (32.5평) 매매가 14억 4천 원  
현동(현동) 대지 157㎡ (47.7평) 전용 108㎡ (32.5평) 매매가 14억 4천 원

**근린시설/경매**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잔여가	비고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주책/토지개발** 경이사 010-5679-8865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잔여가	비고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근린주택** 경매전문회사 011-684-3886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잔여가	비고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
신안동	대지 30,213	193년	197년	483㎡